

# “승전가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하라”



광주FC 아사나시가 지난 8월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광주FC제공>

## 광주FC, 오는 24일 안방서 전복과 최종전

### 유종의 미 거두고 ACLC 정상 향한 ‘힘찬 진군’ 다짐 걸그룹 리센느 공연·푸짐한 경품 등 팬서비스 풍성



GWANGJU FOOTBALL CLUB

광주FC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전복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2024 38R 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K리그 잔류를 확정 지은 광주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ACLC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기용하며 다가오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상하이 선화와의 ACLC 5차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선문대와의 연습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안혁주와 하승운을 비롯해 신창무, 오후성, 정지용 등의 과감한 기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테랑 골백 이상기, 이문득 등이 투입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이정효 감독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병행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한 시

즌 동안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전은 올 시즌 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1번 게이트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인 ‘오월첫동네’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장터가 개최된다.

또한, ‘짹짹’과 협업한 포토카드 키오스크를 운영해 팬들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경기 시작 전에는 인기 걸그룹 리센느의 공연이 열려 현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마케팅 엘리트가 기획·운영하는 ‘엘리트 가을 운동회’, 강기정 구단주와 구단 홍보대사 조빈이 직접 추천하는 경품 증정 등 풍성한 행사로 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빛낼 예정이다.

하나은행 K리그 2024시즌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경기에서 광주FC가 승리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다가오는 ACLC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21일 정광고 역도부에 훈련장비를 전달한 후 배석일 정광고 교장과 비롯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역도 명문’ 정광고 가는 길 광주시체육회가 응원합니다

## 광주시체육회, 역도 활성화 꿈나무 위한 훈련장비 지원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역도 활성화를 위해 정광고 역도부에 훈련장비를 지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1일 정광고 교장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배석일 정광고 교장,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장비(여성용 바벨 4백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은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동계 훈련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역도 명문’ 정광고는 박경렬 감독, 손원진 지도자, 이재민, 김동원, 김보승(이상 1학년)과 제35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 3관왕 이유혜(2학년)

등으로 구성됐다.

또 정광중 역도부도 위선복, 장재훈 선수 등 7명이 학교와 광주를 대표해 활약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날 배석일 정광고 교장,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장비(여성용 바벨 4백만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은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동계 훈련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05년부터 ‘역도 명문’ 학교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광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광주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과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슈퍼 스타’로 빛난 김도영, MVP 수상하나

## 2024 프로야구 MVP·신인상 시상식 26일 개최

### 최연소·최소경기 ‘30-30’ 괄목성과...최연소 타자 MVP 도전 KIA 광도규, 김택연·이지강·조병현 등과 신인왕 타이틀 경쟁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MVP 등극을 노린다.

김도영은 올 시즌 다수의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며 리그를 평정, ‘올해는 김도영의 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MVP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BO는 오는 26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

KIA에서는 네일과 정해영, 김도영이 후보에 올랐고, 원태인과 구자욱(이상 삼성), 오스틴, 홍창기(이상 LG), 박빈, 조수행(이상 두산), 박영현, 로하스(이상 KT), 노경은, 에레디아, 최정(이상 SSG), 레이예스(롯데), 하트, 데이비스(이상 NC), 후라도(키움) 등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MVP 수상에는 단연 KIA

김도영이 가장 유력하다. 김도영은 올 시즌 141경기에서 나서 장타율(0.647)과 득점(143) 부문 타격 2관왕에 올라 리그 유일 ‘다관왕’ 선수가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타율(0.347) 3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1.067) 1위, 루타(352) 1위, 3루타(10) 1위, 홈런(38) 2위, 안타(189) 3위 등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그가 만든 KBO 역대급 기록들도 MVP 수상에 더욱 다가가게 하는 요소다.

월간 최소 ‘10홈런-10도루’를 비롯해 호타준족의 상징 ‘20홈런-20도루’, 역대 2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KBO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21세 이하 최연소 최다 홈런,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등 엄청난 신기록은 이번 리그를 김



2024 프로야구 MVP에 도전하는 KIA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도영의 무대로 바뀌었다.

2003년 10월 2일생인 김도영이 MVP를 받으면 타자 최연소 MVP 수상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역대 최연소 타자 MVP는 1997년 10월2일에 MVP를 받은 이승엽 현 두산 베어스 감독이고, 투수와 타자를 통틀어서 최연소 MVP를 수상한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류현

진이다.

한편, 신인상 후보에는 KBO 표창규 정 제조에 의거해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들 중 총 6명이 선정됐다. KIA는 광도규가 후보로 올라 김택연, 최지강(이상 두산), 조병현, 정준제(이상 SSG), 황영목(한화)와 신인왕 타이틀을 두고 경쟁한다. /주홍철 기자

# 유해란 ‘베어 트로피’ 유력

## 평균 타수 3위...1, 2위 티미쿰·코르다 규정라운드 미달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서 일본 후쿠에와 결판

유해란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평균 타수 1위에 올려주는 베어 트로피 수상에도 도전한다.

올해 LPGA 투어에서 한 차례 우승한 유해란은 현재 평균 타수 69.98타로 3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69.54타의 지노 티미쿰(태국)이고, 2위는 69.66타의 넬리 코르다(미국)다.

그런데 평균 타수 1위에 올려주는 베어 트로피는 한 시즌에 규정라운드 수를 채운 선수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미국 골프 채널은 21일 “티미쿰과 코르다는 올해 규정라운드 수를 채우기 어렵다”며 “최근 5년 사이 세 번이나 평균 타수 1위가 베어 트로피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규정라운드 수는 70라운드, 현재 티미쿰이 62라운드, 코르다는 60라운드만 치렀다.

올해 남은 대회는 21일 개막하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4라운드를 소화더라도 티미쿰과 코르다는 70라운드를 채울 수 없다.

유해란은 이미 80라운드를 치러 규정라운드를 채웠다. 평균 타수 4위는 70.05타의 후루에 아카(일본)다. 후루에 역시 70라운드 이상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70.22타로 5위인 인뤼닝(중국)과 70.27타로 6위인 해나 그린(호주)은 이번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통해 70라운드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유해란은 베어 트로피 수상 가능 후보 중 현재 평균 타수 1위인 셈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베어 트로피를 받은 것은 2003년 박세리가 최초였고, 이후 2004년 박지은, 2010년 최나연, 2012년과 2015년 박인비, 2016년 전인지, 2019년 고진영 등 7차례가 있었다.

2019년 고진영 수상 이후 2020년 대니엘강(미국), 2021년과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교포 선수들이 계속 이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티미쿰이 베어 트로피 주인공이 됐다.

LPGA 투어 주요 개인상으로는 올해의 선수, 베어 트로피, 신인상, 상금왕 정도가 있다.

한국 선수들은 2022년에는 위 4개 부문 수상자 명단에 들지 못했고, 지난해 유해란이 신인상을 받았다.

2024시즌 올해의 선수는 코르다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3개 부문 수상자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결과로 정해진다. /연합뉴스



# 팬들과 함께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

## 오는 30일 DJ센터...팬 사인회·토크쇼·푸짐한 선물 증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4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KIA 선수단이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

해 마련한 축제의 장이다.

타이거즈 페스타는 팬 사인회, 우승 트로피 포토존 등 사전 행사로 문을 열고, 선수단과 우승 트로피 입장, 선수단 감사 인사,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다시 외치는 한국시리즈 응원전, 호랑이가족 한마당,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진다.

선수들이 마련한 ‘호랑이가족 한마당’은 토크쇼와 장기자랑, 흑백 호랑이, 뮤직비디오 및 숏폼 영상 상영 등으로 채워진다.

KIA는 이날 페스타 입장 팬 전원에게 통합 우승 특별 포토카드와 한국시리즈 응원머플러를 나눠준다. 여기에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이 마련한 텀블러 1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페스타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



해 28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1인 2매 한정, 시즌권자는 구단 APP을 통해 오전 11시 예매 개시) /주홍철 기자